

# 월평균 285만원 벌어 169만원 쓴다… 소득대비 지출 많아

## 통계로 보는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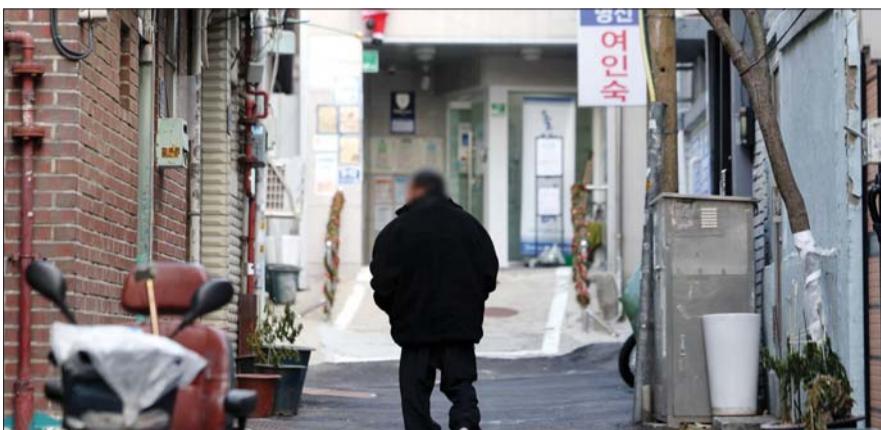
지난해 평균 연소득 3423만원  
자산 2억2302만원·부채 4019만원  
최다 여가활동 동영상 콘텐츠 시청

지난해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7247만 원) 소득의 46.1% 수준에 그친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 원의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다.

또 1000만 원 미만이 10.6%나 됐다. 3000만~5000만 원은 25.9%, 5000만~7000만 원은 12.2%, 7000만~1억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2.5%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289만 원) 보다 120만1000원



국가데이터처는 9일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1%로 집계됐다. 사진은 9일 서울의 노년층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모습.

적었다. 다만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58.4%으로 소득(46.1%)에 비해서는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지출 비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비주류음료(13.6%), 교통·운송(10.6%)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커졌다. 소득

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1인 가구의 23.4%는 소득에, 21.4%는 소비생활에 만족을 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9만7000가구로 수급을 받는 전체 가구의 74.2%를 차지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전년대

비 6.3%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체 가구(5.4%)보다 높았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억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9.3% 수준이었다. 부채는 0.2% 증가한 4019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42.2%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인 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1인 가구 중 68.9%는 몸이 아플 때, 45.6%는 돈을 빌려야 할 때, 73.5%는 우울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답변 비율은 전체 평균(몸이 아플 때 75.1%, 돈을 빌려야 할 때 51.4%, 우울할 때 78.8%)에 비해 낮았다.

평소 자주·기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p 높았다.

1인 가구의 주말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5.7%로 가장 많았다. 휴식(7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2.0%), 취미·자기개발(17.8%), 관광 활동(13.9%), 사회 활동(13.0%), 스포츠 활동(12.3%), 문화·예술 관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5 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했다. 전체 인구보다는 여가시간이 0.8시간 더 길었다. 주말 기준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6.4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고, 전체 인구보다는 0.7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4.1%p 높은 35.9%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이 민족스럽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9.5%였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 비율은 낮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높았다. 이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47.6%), 건강·체력 부족(25.9%), 시간 부족(11.6%)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외국인 발길 돌려라…'서 계속

## 선정경로·평가기준 비공개… “보안관련 비전이 당락 가를 것”

### KT 차기 대표이사 선출

비공개 심사로 공정성 도마 위  
업계 “무조건 공개가 해법은 아냐”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CEO) 선출을 위한 후보자 화상 면접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내부 출신 인사가 주축이 된 '3파전' 양상을 짐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 선정 경로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이른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동시에 일반적인 대표 선임 과정에서의 세부 심사 내용 공개는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공개함으로써 외압 등으로부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축된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늦게 3~4명의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발표한다. 선정된 후보들은 오는 16일 대면 면접을 거칠 예정이며, 이사회는 이날 최종 1인을 확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후보자 선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과정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달 공모 마감 이후 33명

이 지원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1차 심사를 통과한 7명이 공개 모집·외부 추천·주주 추천 중 어떤 경로를 통해 선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평가 배점이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 새노조(제2노조) 측은 "후보자 지원 경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며 "후보 명단을 공개했던 2019년보다 투명성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T 노동조합(제1노조) 역시 "정치권과 외부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대표 선임 과정에서 세부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내외 대부분 기업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절차일 뿐이며,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공정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보자 명단과 세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부친 것은 후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잡음이나 외부의 외압을 차단해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며 "무조건적 공개가 언제나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번 심사에서 보안 관련 비전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EO 선임 과정이지만 단순한 경영 능력을 넘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비전과 보안 투자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선임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부실기업 퇴출 등 과제 산적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기업은 180곳이 제시됐으며 261조4590억원에서 272조4994억원으로 4.22% 늘었다.

알짜 대형주들이 코스닥을 떠나는 상황이지만 한계기업은 여전히 코스닥에 계속 머물러 있어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1811개 중에서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 중인 기업은 61개에 달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수는 37개로 작년 20개 보다 크게 늘었지만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수는 19개로 작년 14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기대반 걱정반이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책적 수혜와 12월 월바텀 현상을 기초로 중·소형주의 상대강도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바이오·로봇 업종은 대외적 환경 변화에 가장 먼저 하락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벤류업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지원도 좋지만, 기초체력이 좋은 기업들을 많이 상장시키고 그 성과가 곧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코스닥의 오랜 고질병인 부실기업 퇴출과 불투명한 공시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 "中 저가 공세 벗어나야"… K-디스플레이, 고부가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재정비

LGD 프리미엄 패널 입지 강화  
삼성D HMO 설비 구축방안 검토

중국발 저가 공세로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데 분주하다. 고객사 요구 수준이 까다로운 고난도 공정 기반 제품에 무게를 둔다는 전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OLED 패널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증설에 나선 데다 경기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점이 사업

축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8년부터 생산을 멈춘 경북 구미 사업장의 일부 부지를 미코세라믹스의 자회사 미코파워에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LCD 패널을 생산하던 곳이다. 업계에서는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OLED 기술 고도화와 재무 구조 안정화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구체적인 거래 대금과 활용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광저우 대형 LCD 공장을 중국 TCL그룹 자회사 CSOT에 약 2조256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에 1조 2600억원을 투입했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고난도를 요구하는 애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해 프리미엄 패널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이 그간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해 온 저온다결정 산화물(LTPO) OLED를 아이폰17부터 모든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관련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LG디스플레이는 LTPO OLED 부문에서 특히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총 649건의 LTPO OLED 특허를 출원, 전체 LTPO 특허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가동 예정인 IT OLED 8.6세대 생산라인에 고이동 성산화물(HMO) 디스플레이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HMO는 LTPO 디스플레이 대비 전력 효율이 뛰어나며, HMO는 전체 픽셀 구동을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TFT)로 구성해 아몰퍼스 실리콘(a-Si) 대비 전자 이동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것이 특징이다. 높은 이동 속도 덕에 120Hz 이상의 고주사율이 가능하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픽셀을 넣을 수 있어 고해상도 패널 제작에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서 OLED 패널 채택이 확대되면서 국내 패널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OLED 출하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중심의 공급망에서는 여전히 한국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